

## ■ 본문

마 15:21-28

## ■ 시작 찬송가

15, 20, 70장  
(통 55, 41, 79장)

## ■ 헌금 찬송가

393, 500, 545장  
(통 447, 258, 344장)

## ▶ 믿음

### 1. 믿음의 능력

1)병을 낫게 한다.  
(약 5:15, 행 3:16, 마 8:13)

2)세상을 이긴다.  
(요일 5:4-5)

3)핍박을 이긴다.  
(히 11:33-34)

4)의를 행한다.  
(히 11:33)

5)이적을 행한다.  
(막 16:17-18)

6)죄에서 자유케 된다.  
(요 3:18)

7)구원을 얻는다.  
(막 16:16, 눅 7:50, 행 16:31)

8)영생을 얻는다.  
(요 3:15-16, 요 6:40,47)

## 믿음의 성장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기 위해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기 때 많이 먹어도 키가 안 크는 학생이 있고, 많이 먹지 않아도 키가 큰 학생이 있는 것처럼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의 키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전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짧은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행동은 믿음을 확인하는 모습이 아닌, 훈련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15: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때로는 더딥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30년, 40년, 70년이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짧은 순간이나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첫 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따지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 15:7-9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어떠한 훈련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

### 1) 사회적 신분의 장벽

우리는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은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 앞에 여러 가지 장벽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와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방인 여자가 유대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거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사회적 위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넘어서야 합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2) 침묵과 모욕의 장벽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이 간절히 외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서적으로 꼽히는 책은 '엔도 슈사쿠(Endo Shusaku)'의 침묵입니다. 이 책은 막부시대에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먼 항해를 통해 일본에 몰래 상륙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신앙 때문에 고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 중에는 이러한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침묵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 15: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침묵의 장벽 다음에 하나의 장벽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의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양들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아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모욕이 만들어내는 '모욕의 탕'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 '모욕의 탕'에 빠진 것입니다.

**삼상 18: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모욕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장벽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정'을 '긍정'으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정'을 '긍정'으로 대하는 '위트'가 있어야 합니다.

**마 15: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율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의 딸이 나오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음을 받았다'라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 '부스러기'가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작은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을 사모할지라도 큰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것을 기뻐하고, 큰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모할 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삼하 5: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모든 성도들께서도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 '부스러기 믿음'을 통하여 '큰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한마디

## 믿음의 긍정으로 장벽을 넘어서는 성도가 됩시다!

###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2.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

### 1)성경

(요 2:22, 요 20:30-31)

### 2)복음

(막 1:15, 행 15:7)

### 3)설교

(요 17:20)

### 4)그리스도의 말씀

(요 4:41-42, 요 13:19)

### 5)은혜

(엡 2:8)

### 6)전도

(론 3:4-5, 막 16:15-16)

### 7)기도

(막 9:24, 눅 22:32)

### 8)주의 종

(살전 3:10)